광주 아파트 매매가 5년간 3300만원 올랐다

전남 2867만원으로 인상폭 전국 최저

수도권 3000만원⬇지방 4000만원⬆

최근 5년 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 가량 오른 가운데 광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지역 아파트값이 5000만~6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지방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 반면, 광주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1월 셋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638만9505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지방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억7917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보다 3500만원 가량 낮은 1억4469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매년 1월 기준, 5년 전인 2009년 1억1159만원이었으며 2010년 1억1422만원, 2011년 1억1617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줄이기에 나선 건설사들의 공급 감소 정책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건립에 따라 이주 수요가 급증한 2012년엔 전년보다 2200만원 가량 상승한 1억3811만원으로 올랐고, 상승세가 이어진 지난해엔 1억4351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폭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치로, 광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 5년간 1억6951만원에서 2억3342만원으로 6391만원이 올랐으며 울산과 대전도 1억5308만원, 1억6633만원에서 2억504만원, 2억1314만원으로 각각 5196만원, 4681만원이 뛰었다.

전북의 경우 2009년엔 광주보다 1100만원 가량 낮은 1억8만원이었지만, 올해엔 1억4565만원까지 올라 광주보다 더욱 가파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전남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0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1억원에 못미치는 8293만원이었으며 올해 기준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억1160만원을 기록, 5년 새 아파트값은 2867만원 상승에 그쳤다.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가 5년 새 4000만원 오르는 동안 수도권은 3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부터 공급물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광주는 2012년부터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며 "혁신도시 조성 등 부동산 개발 호재도 집값이 오르는 데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AI 피해 농가·업체 세정지원

부가세 등 납기 연장…환급금은 최우선 지급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2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를 포함해 도축장, 관련음식점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으로 찾아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지원 대상업체는 오리농가, 도축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매출이 급감한 가금류 취급 음식점 등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현황 신고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홈택스 서비스에 의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부 일자리·문화재생 사업 선정

광주 첨단·소촌산단 국비 15억 지원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촌농공산업단지가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문화재생사업 등을 집중 지원받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이 찾는 중소기업 만들기 합동 프로젝트'를 공모한 결과, 광주시가 제출한 첨단 및 소촌산단의 광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5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교육·보육시설 등에 대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첨단산단에서는 국비 4억8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 등 6억원을 들여 광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이 진행되며 앞으로 120여명의 청년에게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하게 된다.

소촌산단에서는 20억원(국비 10억원·시비 10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이 펼쳐진다.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프로젝트를 통해 산단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운영 콘텐츠와 문화예술공간 기획·운영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롤모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설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새해 소망 빌기,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등을 직접 해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입춘첩 만들고 전통문화 체험해 보세요

광주은행 '갑오년 설맞이' 행사…대여금고 무료임대 서비스도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갑오년 새해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오는 2월 21일까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갑오년 설맞이 광주은행이 함께 합니다' 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은행 본점2층 광주은행 금융박물관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과 함께 봄의 시작을 상징하는 입춘(立春)을 앞두고,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집 입춘첩'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소원나무,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와 같은 민속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 가족 및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여금고 무료임대 서비스' 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본점 PB센터(3층), 금남로지점, 하남공단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 등 5개 영업점의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홍보실 김경태 실장은 "광주시민과 광주은행을 찾는 많은 고객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며 "특히 어린이들에겐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부모님들과 함께 많은 관람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소기업·소상공인 17조원 신용보증

중기청 지역신보재단 통해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7조8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보증으로 지난해와 같은 15조원(보증잔액 기준)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113만 명의 신용 보강으로 약 16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70.42 (+6.53)	523.07 (+2.08)	2.92% (0.01)	1067.40원 (+2.10)

광주테크노파크 호주 페어웨이덴탈社와 MOU

쿠보텍 5년간 1000만달러 치과용품 수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쿠보텍의 호주지역 수출지원을 위해 호주 치과용 소재 및 부품 유통업체인 페어웨이덴탈(Fairway Dental)사와 21일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쿠보텍은 1000만 달러 상당의 저온 플라즈마 살균세척기 및 치과용 제품 및 소재를 페어웨이덴탈사에 향후 5년간 수출하기로 했다.

쿠보텍의 살균 세척기 'T-CleanA'는 지난해 샘플(100대)납품을 통해 호주지역 치과의사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어 호주지역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지난 2007년 3월 설립한 쿠보텍은 연매출 70억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치과제품관련 중소기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새얼굴

"한차원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사업부장

"삼성증권은 올해 '고객 중심 경영체계 확립'의 해로 정하고,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사업부장은 "PB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상품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호남지역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강조 했다.

김 사업본부장은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95년에 삼성증권에 입사해 서부사업부 팀장, 대전 총괄지점장, 분당 총괄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